



Theme Special  
예술가의 몸, 감각에서 사유  
Artist 임민욱 김선두 구성  
Report 아시아 아트 어워드  
We are the New Gallerie  
젊은 갤러리가 살아가는 법  
지금, 한국의 갤러리는 세대

## 해체된 감성의 이데올로기

글 | 정용도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김영현과 갤러리캐토리의 정소영, 산드로 세틀라 전시는 작품 제작 측면에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간에 존재하는 배울 수 없는 간극에 대한 우리 감성의 반응, 그리고 그 간극이 우리가 지각하는 현실 어느 곳엔가 존재하는 지각적 기호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인식적인 인식이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 논리적 전개를 통한 하나의 통일적 구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차원에서 이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내밀함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다. 그 반성의 방향성은 삶이 예술과 가지는 관계를 결정하고, 예술은 어느 한 차원을 제시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양태들을 분열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한다.



정소영 <인크 방울> 폴리메스터, 금속, 합판 600×50×200cm 2007

오른쪽 페이지 위 · 산드로 세틀라 (Paolantonio Bruno Taut) 세차에 피스텔과 탁판 280×100cm 2009 기운대 · 산드로 세틀라 (Beachhouse/Dusk, Exterior) 세차에 탁판 244×80cm 2010 아래 · 산드로 세틀라 (Beachhouse/Blue Loft) 세차에 피스텔과 탁판 280×100cm 2010

76 art in culture

### 공간에 대한 독백

김영현의 의식은 기계적 문명에 대한 반응의 세계관에 거주하는 듯 보인다. 작가에게 배치는 기술에 의해 자유로워지는 해방으로의 진행이 아니라, 작가가 불안해 하는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회고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소영 역시 미니멀한 언어를 구사한다. 그 언어는 작가가 생각하는 상상의 형식과 대응 관계로 존재하는 오브제들이 만들어 내는 일치성으로 나타나지만 개념적으로는 불일치 상태를 제시한다. 작가가 공간을 개념의 확장이 아닌 하나의 오브제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컴퓨터를 통해 계산되어 만들어진 대상화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드로 세틀라의 드로잉에서는 공간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하나의 개념적인 형식으로 제시된다. 세틀라는 드로잉을 가지고 만들어 낸 모호한 풍경들을 통해 우리의 시각적 경험의 세계를 흐트러뜨린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이미지가 존재하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명의 작가들은 공간에 대한 독백을 이어간다. 이들에게 시간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적인 요소이자 개념적인 수단이다. 이는 모더니스트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모더니스트들에게 시간은 역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며, 기억이 작동하는 배경으로서의 과정이다. 즉 시간은 공간에 대한 해석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장치일 뿐이다.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공간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자 존재의 실체이고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원칙은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은 대상화되고 그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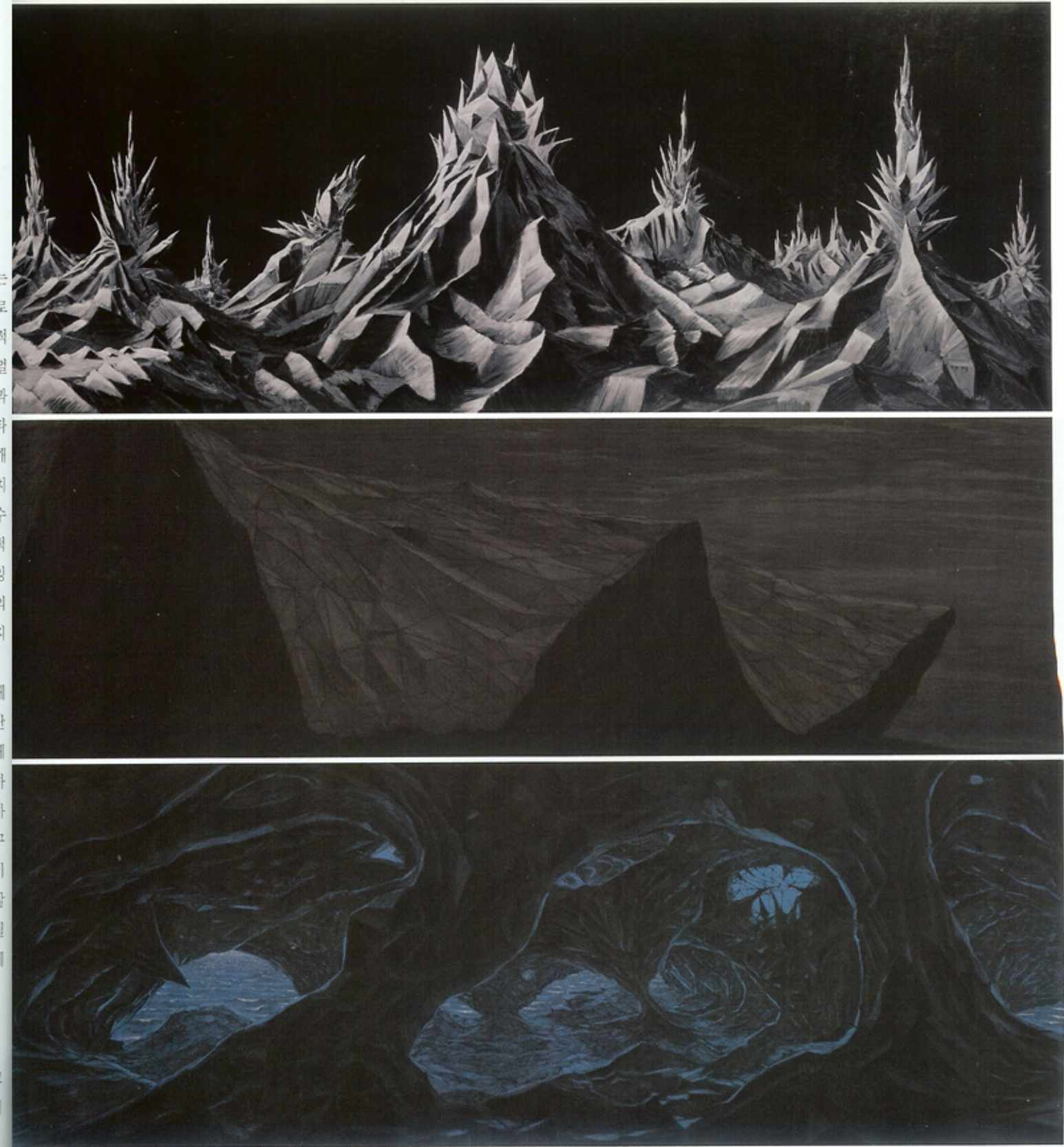
### 타자화된 삶 자체

김영현은 공간에 대한 것을 기억과 이미지로 환원시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키네틱적인 사고는 소프트웨어

와 작품의 제작이 표면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대중문화적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김영현의 작품은 기치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키치는 혁명을 꿈꾸지만 현실 자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축된 사유의 틀을 하나의 심각한 상황으로 제시한다. 칸트적인 의미에서 공동감 (Sensus communis)을 제기함으로써 삶 자체를 타자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키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관점이다. 예술이 삶의 차원을 포용하고자 하는 것은 삶이 시간의 흐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즉 생성과 해체의 차원은 삶의 차원을 사유와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기도 하고, 삶을 하나의 존재론적 상황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역사화시킨다. 역사적인 것은 문화적 성격을 획득하지만, 문화는 사건의 형식이 아니라 정신의 분위기로 일반화된다.



78 art in culture



로 일반화된다.

### 뉴미디어 시대의 표면적 기억

정소영과 산드로 세틀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생성하는 순간들의 무한한 연장을 이미지화한다. 이들 작품 역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인 차원보다는 구축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을 존재의 성격에 규정하는 예술작품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제목 (예기된 참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심리적인 공간에 대한 탐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된 오브제들의 물질성에 내재되어 있는 해체의 차원을 그들 작품의 예술적 차원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다. 역사 속의 사건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오브제에서 발견한 것들을 그들 작품의 핵심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해체된 감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삶과 예술을 하나의 집합적인 전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감성적 차원은 모더니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적 사유에서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질 수 없는 것 간의 지각적 차이에 관한 문제다. 미디어아트에서 더 이상 예술은 창작의 문제가 아닌 생산의 문제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예술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존재의 조건들 속에서도 미학적인 것과 관련된 본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3명의 작가들이 만들어 내는 작품의 공통점은 인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인상은 정지된 이미지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지각 작용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판단력과 관련된 인상들이다. 그 인상들은 표

면적인 수박에 없는데, 표면을 거쳐 인상의 내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지를 바라보고 이미지를 수용하는 기능적인 차원의 접근에 대한 조건들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영현의 작품이 표면에 대한 내적인 투사로 이루어져 있다면, 정소영과 산드로 세틀라의 작품은 내적인 투사를 오브제의 표면으로 끌고 나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세 작가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표면을 하나의 매개체로 이용함으로써 더 이상의 의미 부여를 거부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대중문화 시대의 문화적 아이러니가 가지는 특성이기도 하고, 삶을 하나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포스트모던적 시각의 결과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던 이후의 뉴미디어 시대에 더 이상 예술은 테마를 요구하지 않고 종합적 총체적 사유를 위한 도구도 아니다. 예술은 단지 삶의 풍요로움에 방관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지닌 생산물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의 관점을 통해 바라보는 역사는 더 이상의 차원을 재구성하지 못하고, 예술은 삶의 테마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문화는 예술마저도 문화 차원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요구한다. 이런 면을 배경으로 세 작가는 뉴미디어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데올로기적이고 표면적인 기억과 역사성을 예술의 풍경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술의 풍경은 철학과 역사적인 공생 관계에 있지 않다. ●

왼쪽 · 김영현 (인벤토리노 노스텔지아-p0920) 러닝에 유화 162×130cm 2009 오른쪽 · 김영현 (인벤토리노 노스텔지아-p0919) 러닝에 유화 146×112cm 2009

왼쪽 페이지 김영현 (그들에게 속한 시간) 비디오 설치 2001

정용도 미술평론가, 콘서트음악연구소 소장, 삼명대 음악대 서양악과장 겸임. 2010 디지메스타 (연남문화발전) 큐레이터를 역임했다.